

아시안컵 우승 향해...벤투호 담금질 나선다

내일 조기소집 명단 발표...11일부터 울산서 훈련 유럽·중동파 제외...국내파 위주 치열한 생존경쟁

59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벤투호가 아시안컵을 앞두고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국내파를 중심으로 진행할 대표팀 조기소집 명단을 4일 발표한다. 명단은 기자회견 없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한다.

조기소집 대상은 유럽파와 중동파를 제외한 국내

K리거와 일본, 중국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원래 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대회 개막(1월 5일) 보름 전인 22일부터 소집할 수 있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들의 도움을 받아 11일 앞당겨 불러모으게 됐다.

소집 대상 선수는 23명에서 25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가 23명이기 때문에 손흥민

(토트넘)과 기성용(뉴캐슬), 황희찬(함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 킬) 등 유럽파들이 가세하면 일부는 탈락할 수 있다.

대표팀 조기소집 기간 국내파 선수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한 셈이다.

조기소집 선수들은 1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모여 훈련을 시작하며, 대표팀이 22일 아시안컵이 열리는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나기 때문에 최종 명단은 출국 직전 발표한다.

한·중·일 리그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 벤투호 출범 후 가장 많은 3골을 넣은 공격수 황의조(감바 오사카)와 미드필더 황인범(대전), 문선민(인천), 수비수 이용, 김민재(이상 전북), 박주호(울산), 홍철

(수원) 등은 대표팀의 한 자리를 예약한 상태.

또 호주 원정으로 치른 11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때 소집됐던 공격수 나상호(광주)와 미드필더 김승현, 이진현(이상 포항), 수비수 박지수(경남)도 일단 조기소집 명단에는 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K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조기소집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려 벤투 감독의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1960년 우승 이후 59년 만의 정상 탈환을 노리며, 중국, 키르기스스탄, 필리핀과 같은 C조에서 조별리그를 벌인다.

/연합뉴스

“황의조, 감바 오사카와 계약 연장 합의했다”

일본 스포츠신문 보도



올해 화려한 득점력을 과시한 공격수 황의조(26·감바 오사카·사진)가 일본 프로축구 무대에서 계속 활약하게 됐다.

일본의 스포츠신문 스포츠호치는 2일 “팀내 최다인 16골을 뽑아(1부 잔류)에 기여한 황의조가 감바 오사카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매체는 “앞으로 외국 구단으로부터(황의조) 영입 제안이 올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감바 오사카) 잔류가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한국 프로축구 성남FC 소속이던 작년 6월 감바 오사카로 이적하면서 2년 계약했다.

내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조기 재계약으로 황의조의 잔류를 선택했다.

황의조는 올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강등권을 맴돌던 감바 오사카가 중위권 성적으로 1부리그에 잔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적 첫해인 작년 3골을 기록했던 황의조는 올 시즌 리그 16골을 폭발해 팀 공격을 주도했다. 이는 조(나고야·24골), 패트릭(히로시마·20골)에 이어 J리그 득점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조와 패트릭은 모두 브라질 출신으로, 일본 선수를 포함한 아시아 선수 중에선 황의조가 최고 득점자다.

또 지난달 10일 쇼난 벨마레전까지 6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벌이는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줬다.

그는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득점왕(9골) 등극을 계기로 대표팀에서도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 부임 이후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11월 A매치 2연전(호주·우즈베키스탄)에서 모두 골 맛을 보는 등 한국 대표팀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3골을 터뜨리면서, 2019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활약의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명가 FC 서울의 ‘굴욕’

시즌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부산과 맞대결

‘전통의 명문’ FC 서울이 승강 플레이오프(PO)의 운명을 맞았다. 상대는 2년 연속 승강 PO에 나서는 부산 아이파크다.

프로축구 서울과 부산이 각각 1부 잔류와 1부 승격이라는 다른 목표를 안고 6일과 9일 승강 PO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앞서 서울은 지난 1일 상주 상무와의 K리그 1 시즌 최종전에서 0-1로 지면서 11위로 2018시즌을 마감했다.

상주와 승점 40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득점에서 1점 차로 밀리며 11위가 됐다.

이에 따라 여섯 차례 K리그 우승을 이루고 두 차례 FA컵 우승컵도 차지한 서울은 장단 후 첫 하위 스플릿 추락에 이어 승강 PO에 나서는 수모를 겪게 됐다.

또 부산은 같은 날 열린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대전 시티즌을 3-0으로 제압하면서 승강 PO 티켓을 얻어냈다.

부산은 지난해에도 승강 PO에 진출했지만 승부

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상주에 지면서 눈물을 흘렸다. 특히 부산 선수들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조진호 감독 영전에 ‘승격’을 바치겠다고 굳은 각오로 나선던 만큼 패배의 충격은 컸다.

‘마지막 자존심’을 건 서울과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나서는 부산은 6일과 9일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승강 PO를 갖는다.

1차전은 6일 오후 7시 부산의 홈인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다. 2차전은 서울의 안방인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9일 오후 2시 10분 치러진다.

두 팀의 승수가 같으면 1·2차전 합산 득실차로 승자가 결정된다. 합산 득실차가 같을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을 따지게 된다.

합산 득실차·원정 다득점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두 팀은 연장전(전·후반 15분)을 치르고, 연장전 무승부시 승부차기가 진행된다.

서울과 부산의 ‘운명의 승부’에 K리그 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높이의 농구 보여주미” 2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경기 한국과 요르단 경기. 한국 김중규가 골밑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3경기 연속 풀타임...뉴캐슬 4경기 무승 마감

기성용(29·뉴캐슬)이 3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팀 내 입지를 재확인했으나 팀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성용은 1일(현지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이번 시즌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초반엔 출전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기성용은 최근 점차 기회를 얻으며 팀의 상승세에 앞장섰고, 이날도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낙점돼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러나 팀은 0-3으로 완패했다.

뉴캐슬은 11라운드 시즌 첫 승리부터 이어온 3연승을 포함해 최근 3승 1무의 상승세가 꺾였다. 순위

는 14위(승점 12)로 밀렸다.

웨스트햄은 뉴캐슬과 순위를 맞춰줘 13위(승점 15)로 올라섰다.

전반 뉴캐슬이 7개의 슈팅을 속독 없이 난사한 사이 웨스트햄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전반 11분 로버트 스노드그라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순간적으로 수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위치에 놓인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치차리토)가 골대 앞으로 뛰어들며 오른쪽을 갖다 대 결승 골을 터뜨렸다. 전반 웨스트햄의 유일한 슈팅이었다.

이후 뉴캐슬이 쉽게 반격하지 못한 가운데 후반 18분 치차리토의 추가 골로 기세를 이어간 웨스트햄은 추가시간 펠리피 안데르송의 세 번째 골로 쉐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p>산행안내</p> <p>12월 5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2월5일(수)경남 통영 제석봉(281m)-발암산(277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일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p> <p>12월 8일(토) ▲광주호산회 12월 8일(토) 고성 연화산 산림청 선정 100대명산,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p>	<p>출발,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p> <p>▲광주키산악회 12월 8일(토) 경남 30년만에 개방 된 남해 한려해상공원, 두모계곡, 부소암코스 산행, 영주체육관 07:30, 건강관리협회 07:35, 돌고개 07:40, 광주역 07:55, 문예후문승강장 07:55, 비엔주차장 도로변 08:00 *다음카페 광주키산악회 ☎ 010 7794 6920</p> <p>12월 9일(일) ▲광주신가족산악회 12월 9일(일) 보성 봉화산 호남정맥 산행, 영주체육관 08:30, 대인광장 08:50, 동광주역 09:00 *다음카페 광주신가족산악회 ☎ 010 6886 9106</p> <p>▲광주산사모산우회 12월9일(일) 남해 금산</p>	<p>(100대명산) 영주 모아레포즈 입구 06:00,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06:35, 비엔날레주차장 06:50, 문화예술회관 후문앞 07:0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p> <p>▲광주산친구산악회 12월 9일(일) 거창 보해산 & 금귀봉, 영주체육관 06:30, 예술회관 06:35, 월산동, 오민석신경외과 06:38, (구)남구의회 맞은편 06:40, 농성동 S-OIL 주유 06:45, 신세계백화점 육교앞 06:50, 문예회관 후문 06:55, 비엔날레주차장, 도로변 07:00 *다음카페 광주산친구산악회 ☎ 010 6462 5014</p> <p>▲광주자연보전단사회 12월 9일(일) 창원 저도 비치로드길&해양 드라마 세트장 관람 및 트레킹,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읍</p>	<p>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p> <p>12월 12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2월12일(수) 전남 고흥 팔영산(608m) 굴판매장경유,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일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p> <p>12월 15일(토) ▲광주호산회 12월 15일(토) 완도 소안도 섬산행, 06:0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20 롯데백화점, 06:30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p> <p>12월 1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2월19일(수)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팔용산(328m) 톨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일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p> <p>12월 22일(토) ▲광주호산회 12월 22일(토) 해파랑길19코스,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0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p>	<p>12월 23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12월 23일(일) 갑남산&투봉, 영주체육관 07:40, 무등경기장 08:00, 동광주읍플러스 08: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p> <p>12월 26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2월26일(수) 전남 보성 오봉산(324m) 송년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일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p>
---	---	--	---	---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p>LOTTE CINEMA 총장로관</p> <p>1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p> <p>2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할로윈</p> <p>3관 완벽한 타인</p> <p>4관 보헤미안 랩소디</p> <p>5관 보헤미안 랩소디</p> <p>6관 완벽한 타인</p> <p>9관 동네사람들</p> <p>7관 씨네카를 동네사람들, 28세 미성년</p> <p>8관 씨네카를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p> <p>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p>	<p>YE MA EK</p> <p>에막21년 소리와 선율을 그림에 담다</p> <p>2018. 11. 28 - 12. 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p>	<p>Adieu! 2018 송년음악회</p> <p>2018. 12. 14.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p>
<p>2018미술단체 공모전 에막21년, 소리와 선율을 그림에 담다</p> <p>11. 28(수) ~ 12. 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p>	<p>광주시립극단 '나의 살던 고향'</p> <p>12. 6(목) ~ 8(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p>	<p>광주시립오페라단 정용성 오페라 '망부운'</p> <p>12. 7(금) ~ 8(토) 빛고을 시민문화관</p>
<p>광주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p> <p>12. 14(금)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p>		